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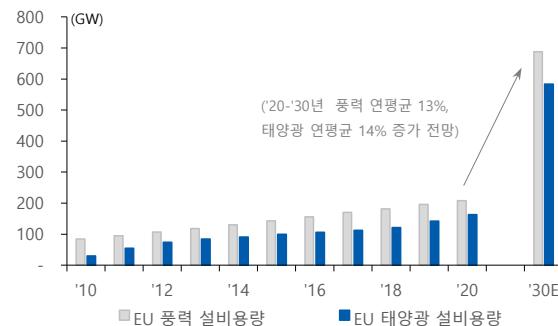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의 수혜를 받을 중국 기업

1. 유럽의 REPowerEU와 늘어난 재생에너지 수요

- EU는 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구조적 전환 가속화 일환으로 'REPowerEU'를 발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제시
- EU는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480GW, 420GW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발전 설비용량은 10년간 연평균 각각 13%, 14% 증가 예상
- 풍력은 해외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는 중국이 공급. EU 재생에너지 확대 조치로 중국 태양광 업체의 수혜가 예상

EU 풍력과 태양광 설비용량 10년간 연평균 각각 13%,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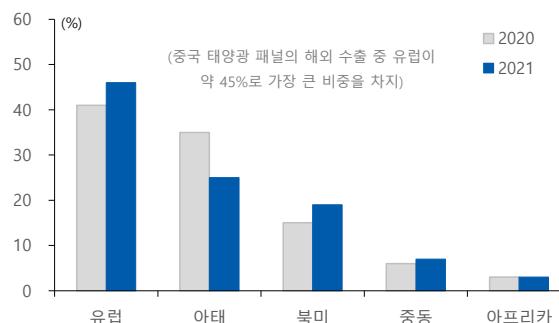


자료: IRENA, European Commission,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국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

- 전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는 중국에서 공급(중국 30%, 해외수출 50%). 해외 수출 중 유럽향이 4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유럽의 에너지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조치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태양광 기업 중에서도 원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 해외 판매채널을 확보한 업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국 태양광 패널의 수출 지역 중 유럽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 조치로 중국 기업 수혜 전망



자료: PV Infolink,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1. 유럽의 REPowerEU와 늘어난 재생에너지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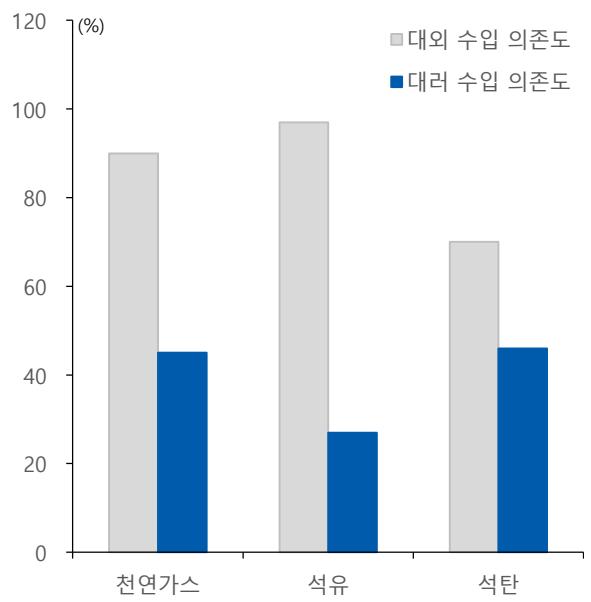
EU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법안의 이행을 앞당김과 동시에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REPowerEU(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 공동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이다.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대외 수입 의존도는 각각 90%, 97%, 70%(무연탄)이며, 그중 대러 수입 물량이 전체의 45%, 27%, 46%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시되었다. EU는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480GW, 420GW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발전 설비용량이 10년간 ('20~'30) 연평균 각각 13%,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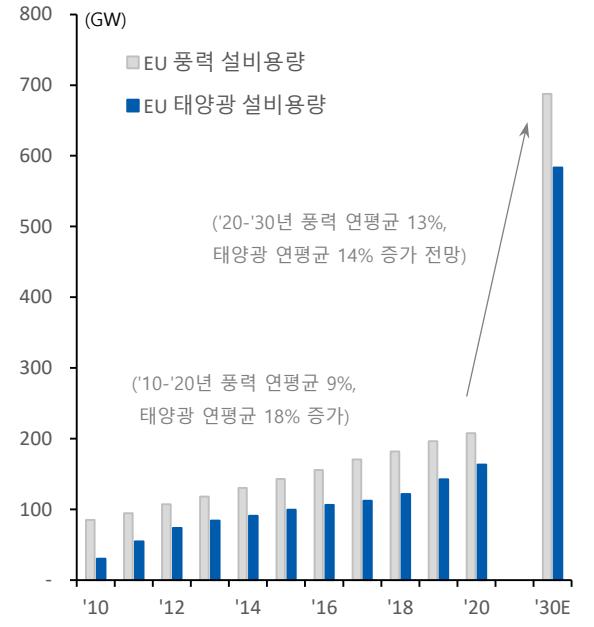
전세계 풍력발전설비는 Vestas, GE, Siemens 등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태양광 산업은 중국이 전세계의 약 80% 공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EU 재생에너지 확대 조치로 해외 매출비중이 높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차트1] EU 최종에너지의 6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러시아 비중이 높음.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EU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10년간 연평균 각각 13%,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 IRENA, European Commission,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국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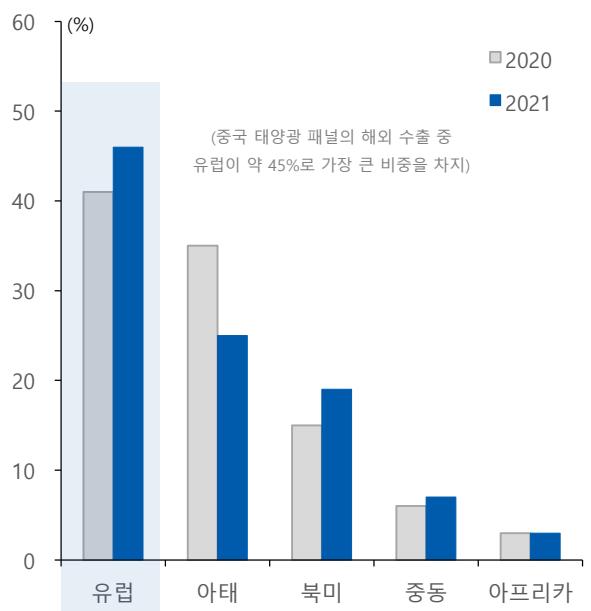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유럽의 에너지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조치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태양광 패널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는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21년 기준 태양광 패널 판매량의 약 30%가 중국 국내 수요이고 나머지 50% 이상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물량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실리콘 원재료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EU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역대 최대인 25.9GW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올해부터 폴리실리콘 원재료 대규모 증설에 따른 가격 하향 안정화와 물류 안정화가 더해지며 태양광 수요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 태양광 기업 중에서도 원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채널을 확보한 업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Jinko, Trina, Canadian, Longi, JA Solar 등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차트3] 중국 태양광 패널의 수출 지역 중 유럽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자료: PV Infolink,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대한 주목이 필요.

